

전기 근대국어 {-습-}의 이형태 분포와 빈도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김 현 주

Abstract

Kim, Hyunju. 2007. 5. On the Correlation between {-sAp-}'s Allomorphes' Distributions and Frequency Effects in the First Half Modern Korean. *Korean Linguistics* 35, 243-274. This paper aims at supporting one supposition of grammatical morpheme {-sAp-}'s historical change by employing the frequency effect theory. What is crucial to allomorphes' respective semantic change is the context which each allomorph takes part in. The pragmatic inference in the context which the subject's denotation is the speaker and the object's one is the listener might make semantic change of {-sAp-} possible. But some allomorphes, that is, /tsAp/, /tsAw/, /tsAo/ and so on, did not undergo such a semantic change. In order to explain these, frequency effect theory very often used by emergentists, employed.

주제어: 문법화(grammaticalization), 습(sAp), 화용맥락(Pragmatic context), 빈도 효과(frequency effect)

1. 들어가며

1.1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본고는 {-습-}의 의미변화의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가정되었던 ‘담화 맥락의 일반화’를 빈도효과 이론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또 어떤 이유로 이 빈도효과가 /습/ 계열의 이형태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중세국어에는 {-습-}의 이형태였던 /즙/ 등이 전기 근대국어¹⁾에서는 제외되었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언어의 변화 여부는 다른 시대의 언어 자료를 비교·대조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화의 원인은 언어 자료만으로는 규명하기가 어렵다. 많은 경우 언어 변화의 원인은 언어 외적이기 때문이고, 본고에서 다루는 {-습-}도 변화 원인은 언어 외적인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즉 안병희(1961), 이승욱(1973), 이영경(1992) 등에서 이미 청자와 객어의 외연, 곧 객체가 동일한 상황이 {-습-}의 의미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했으리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김정수(1984), 서정목(1988, 1990, 1993), 이영경(1992), 이승희(2004) 등에서 청자대우와 경어법의 변천을 다루면서 이 시기의 {-습-}의 분포나 기능 등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실을 밝혔다.²⁾ 김유범(1998)과 박부자(2005)는 {-습-}의 의미 변화와 통합 순서의 변화를 상관적으로 다루었다.³⁾ 본고는 {-습-}의 ‘변화의 동기’를, ‘맥락의 고빈도’로 가정한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습-}과 {-너-}, {-소} 등 청자존대(화자겸양) 선어말어미의 분포를 살피고, 이를 빈도효과 이론에 따라 해석하여 기존의 논의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
- 1) 국어사의 시대구분은 일반론을 따라 조선의 건국부터 16세기까지를 후기 중세, 이후를 근대로 보았다. 하지만 논의의 정밀함을 위해 17세기부터 1849년까지를 전기 근대로, 이후를 후기 근대로 설정한다.
 - 2) 17세기 자료를 상당수 들며 구체적인 논지를 펼치고 있는 논문으로 김정수(1984)를 꼽을 수 있다. 김정수(1984)는 15세기 및 17세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습-}의 분포와 기능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습-}의 다양한 쓰임새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른 논문과 마찬가지로 ‘청지=객체’와 같은 상황 때문에 객체존대가 청자존대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3) 이는 상관성의 원리를 지지한다. Bybee(1985)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의미적 영향성을 상관성(relevance)이라고 명명하고 상관성이 높을수록 어간과 어미가 가까이 나타나고 상관성이 낮으면 어간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일반화된 원리를 도출하였다.

1.2 연구방법 및 일러두기

1.2.1 연구방법

어떤 시점에서의 언어의 상태는 그 이전의 언어 사용의 결과이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일종의 자의적인 기호이다. 따라서 사회가 변하고 구성원이 변하면 기호의 사용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기호의 형태나 용법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의 ‘의미는 사용’이라는 언급이나, ‘언어의 구조와 체계는 언어(사용)의 결과물이지 언어(사용)를 만들어 내는 원리가 아니다’라는 Bybee 외(1994:1, 22)의 언급도 결국 같은 이야기이다. 언어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며 정확하게 예측되지는 않는다⁴⁾. 다만 결과 상태를 통해 어떻게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론은 가능하다(루디 켈러, 2000). 이러한 추론에 자주 애용되는 방법이 빈도를 살피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사용’은 빈도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본고도 맥락과 빈도를 살폈다.⁵⁾ 어떤 언어 단위의 의미가 특정한

4) 언어가 보여주는 구조를 언어 사용의 결과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연구들로서 본고가 참고한, 그 밖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Sapir(1949), Bybee(1985, 2000, 2001, 2003a, 2003b), 루디 켈러(2000), Eliasson(1990), Ohala(1990), Dahl(2001), Mühlhäusler(2002), Hopper and Traugott(2003) 등.

5) 빈도효과는 크게 출현빈도(token frequency)와 유형빈도(type frequency)로 나뉜다. 출현빈도는 특정 형태가 쓰이는 횟수이고, 유형빈도는 같은 형태론적 패턴을 가지는 단위들의 수효이다(Bybee 2001). 유형빈도는 도식의 강화 혹은 생산성(productivity)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유형빈도가 높다고 언제나 생산성이 높은 것은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는 출현빈도 효과에 주목한다. ‘빈번한 쓰임’의 효과 대한 Bybee(2003a, 2003b)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신경-운동 단위의 자동화 ▶ 2) 언어당어의 단일범주화 (혹은 해방emancipation이 나 습관화) ▶ (이어지는 추가적인 효과) 3) 말해진 것 이상의 화용적 추론의

담화맥락에서 특정한 담화·화용적 의미를 가지게 될 때, 이 맥락의 의미가 특정 담화맥락의 고빈도에 의해 자주 소용되면, 그 때 쓰이는 특정 이형태의 담화·화용적인 이의(異意, allo-seme)⁶⁾를 언어 사용자들이 독립된 의미로 재해석케 되어 결국 재분석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현주(2006b)에서는 후기 중세국어 {-습-}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근대국어에서 {-습-}이 한편으로는 ‘읍시’에서처럼 주체존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습니’에서처럼 청자존대 혹은 화자겸양으로 의미가 변하는 것을 ‘특정 담화맥락들의 일반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⁷⁾ 본고는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본고는 어미의 요소로서 의미가 변별되던 어형들이 변별력이 떨어져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개념인 관련성(‘relatedness’, cf. Bybee 1985)도 이용할 것이다. 관련성은 ‘습’과 ‘니’가 현대국어의 {-습니-}로 발전하는 것과 ‘읍’과 ‘시’가 {-읍시-}로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런 언어변화의 한 가지 방식임을 쉽게 개념화해준다.

1.2.2 일러두기

{-습-}이 쓰인 문례들을 보기 위해 주요 논저에서 인용된 문례들과

경향성 ▶ 4) 반복되는 자극의 습관화 ▶ (결국) 5) 어휘의미의 탈색 ▶ 6) 문법 범주화(범주의 넘나들이 나타남)

- 6) 음소와 이음의 관계와 나란한 意素와 異意의 설정은 최호철(1993)을 참조하라.
 7) 김현주(2006b)에서는 몇몇 문례를 근거로 후기 중세국어 {-습-}을 잠정적으로 ‘화자 혹은 화자와 시점이 일치된 행위자가 수동자를 존대할 때 쓰이는 문법 형태소’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근대 국어 시기에 ‘주어=수동자’일 때와 ‘청자=수동자’일 때 {-습-}의 의미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수동자’를 설정함으로써 {-습-}의 기능변화와 주체가 존대되는 것으로 보이는 {-습-}이 사용된 비타동사 구문의 증가(이현규, 1985 등)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형용사 그리고 상당수의 자동사에는 행위자 논항이 없기 때문이다.

세종계획에서 마련한 전산 자료를 다시 정리한 말뭉치를 이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1608년에 나온 <諺解痘瘡集要 上>에서부터 1749년에 나온 율곡 선생의 儒經 —大學·論語·孟子·中庸— 언해들까지를 주 검색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17세기 자료로서 정확한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馬經諺解>, <계녀서>, <서궁일과>, <癸丑日記>, <痘瘡經驗方>, <납약증티방> 등도 포함하였다. 말뭉치 검색도구로는 Synkdp (Ver. 1.5.2)를 이용하였다. 백분을 값은 소수점 둘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한편 이형태가 다르게 발달하게 되는 것을 쉽게 포착하여 기술하기 위해 편의상 ‘◁’를 이용할 것이다. 원래 음운 규칙의 표기 규약에서 환경 기술에 쓰이던 기호인 ‘◁’을 집합적인 기호로 사용할 것이다. 곧 <좁>은 /좁, 즈오, 좁, 짝오, 즈빙, 짝빙/ 등을 아울러 가리키며, <습>, <읍>도 마찬가지로 방식이다.

2. {-습-}의 변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습-}이 의미면에서는 ‘객체존대’에서 ‘칭자존대’로 변했고⁸⁾ 형태면에서는 ‘습, 읍, 소, 오’ 등으로 한정됐다

8) {-습-}의 의미 변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매우 이른 시기의 자료인 오대산상원사중창권선문(1464, 1첩)에서 화자 겸양처럼 해독될 수 있는 {-습-}이 발견된다. 화자가 문장의 주체이면서 존대받는 대상이 뚜렷하지 않을 때, 화자 겸양처럼 해독이 될 수 있는 구절이 몇몇 있다. 이런 경향은 사회적으로는 궁중어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또 연속동사 구성이나 인용절을 풀이하는 경우에서 뒤에 오는 동사 ‘흐다’에 {-습-}이 나타날 때, 화자 겸양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언어 변화와 마찬가지로 {-습-}의 의미 변화가 언어 사회마다 또 구문에 따라 발달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이 문헌은 매우 이른 시기의 필사본 자료로, {-습-}의 기능변화가 아주 일찍 시작되었거나, 애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확인

는 것이다. 기지(既知)의 영역인 {-습-}의 변화 전·후의 상황에 세운 발판이 튼튼할수록 미지(未知)의 영역인 ‘{-습-}의 변화 과정’에 대한 탐구가 수월할 것이다.

2.1 {-습-}의 변화 전·후의 상황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습-}의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객체존대법설과 주체겸양법설로 양분된다. 둘은 존재를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를 보인다.⁹⁾ 그러나 ‘존대하는 존재’와 ‘존대되는 존재’의 파악에 있어서는 각각 주체와 객체로 일치된다. 본고는 김현주(2006b)를 좇아 문법관계인 ‘주체’와 ‘객체’ 대신 각각 의미역관계인 ‘행위자’와 ‘수동자’로 {-습-}의 존재 관계를 재설정하여 고찰할 것이다.

후기 근대국어 시기의 {-습-}의 기능과 형태에 대해 김현주(2006a)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후기 근대국어의 {-습-}은 (주체 혹은 화자를 겸양하여) 객체를 존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듯 보이는 경우가 의고적인 문헌들에서 몇몇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화자가 (자신을 겸양하여) 청자를 존대함’을 표시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습>만은, 그 문법적 지위 설정 문제를 떠나서 보면, 후기 중세국어 {-습-}과 같은 기능으로 쓰이는 듯하다. 즉 ‘밧습다’나 ‘엿습다’ 등 /습/이 석출되는 어형들은 주체의 겸양과 객체를 존대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적인 {-습-}의 의미는 ‘행위자가 (자신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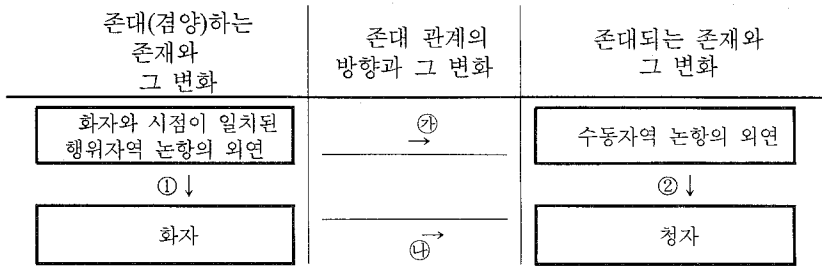
터럭 만흔(화자의) 히믄 적스오니 (1첩의 8쪽)

(우리) 죠고맛 精誠으로 피 ㄹ튼 목수를 돕습고져 흔습다소니 (1첩의 9쪽)

9) 주체존대법설은 주체가 객체를 직접 높인다고 보고, 주체겸양법설은 주체가 겸양하여 객체를 높인다고 본다.

을 겸양하여) 수동자를 존대함'에서 '화자가 (자신을 겸양하여) 청자를 존대함'으로 변해가는 흐름 속에 있었지만 <습>은 그런 변화를 입지 않았다.

정리하여 {-습-}의 의미변화 도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습-}의 의미변화 도식

의미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㉓의 관계를 나타내던 {-습-}이 변화 후인 후기 근대국어에 와서는 ㉔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었다. 우리가 거쳐 갈 수밖에 없는 '추측의 역사'¹⁰⁾는 ①의 변화와 ②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습-}이 나타내는 존대 관계에서 이미 '존대(겸양)하는 존재'가 '행위자'와 '화자'로 모두 가능했기 때문에 ①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해되었다.¹¹⁾ 하지만 ②의 변화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습>은 겪지 않았다.

10) '추측의 역사'는 루디 켈러(2000)에서 언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채용한 철학 용어이다. 직접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상황·과정이라고 하여도 논리적으로 반드시 어떤 과정이 상정되지 않으면 안 될 때, 그 반드시 상정되어야 하는 상황·과정을 일컫는다.

11) {-습-}의 기능에 화자의 겸양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보이는 것은 ①의 변화가 ②의 변화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김현주, 2005).

2.2 {-습-}의 변화 과정

전기 근대국어의 자료들은 문헌에 따라 {-습-}의 의미변화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원간활자본<捷解新語>(이후 <捷解新語>) 같은 문헌의 {-습-}은 이미 청자존대(화자겸양)로 굳어진 듯 보이고 <東國新續三綱行實圖> 같은 문헌들의 {-습-}은 여전히 수동자존대(행위자겸양)로 쓰이는 듯 보인다. 또 <丙子日記>, <山城日記>, <西宮日記>, <玄風郭氏諺簡> 같은 문헌들에서는 두 가지 용법이 다 발견되기도 한다.¹²⁾ 또 어떤 문례에서 {-습-}은 수동자존대(행위자겸양)와 청자존대(화자겸양)로 동시에 해석이 가능한데, 이런 예들은 인지적 계산

- 12) {-습-}의 기능변화의 정도와 관련 전기 근대 국어의 문헌이 세 가지로 나뉜다. 즉 {-습-}의 기능이 문헌 전체를 통해 변화하지 않은 부류, 문헌 전체를 통해 기능이 변한 부류, 기능이 변한 쓰임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모두 발견되는 부류이다. 이렇게 세 부류로 문헌들을 분류하면 <內訓>,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家禮諺解>, 重刊<杜詩諺解>, <譯語類解> 등은 {-습-}의 기능 변화가 문헌 전체를 통해 나타나지 않은 부류이고, <捷解新語>는 문헌 전체를 통해 {-습-}의 기능이 변한 부류가 된다. 그리고 언간과 일기 류 등은 {-습-}의 기능이 변한 예가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부류이다. 김현주(2005)에 의하면 <내훈> 등의 문헌에서는 {-습-}의 기능이 (행위자, 혹은 화자를 겸양하여) 수동자를 존대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山城日記>, <癸丑日記>, <玄風郭氏諺簡> 등은 두 가지 쓰임이 모두 보이며, <捷解新語>에서는 기능이 변한 것만이 나타난다. 두어 자료를 제외하고는 후기 근대국어에서는 {-습-}의 기능이 (행위자, 혹은 화자를 · 겸양하여) 수동자를 존대하는 기능하는 예가 없다. 이런 사실은 전기 근대국어 시기가 {-습-}의 기능변화가 막 완료되는 시기라는 점을 알게 해준다. 비록 <捷解新語>는 동남방언의 영향이 드러나는 문헌이지만, <捷解新語>가 보이는 {-습-}의 의미 · 형태 · 분포의 변화 방향이 현대국어로 이어지는 국어사 전체의 흐름과 일치한다. 따라서 변화의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捷解新語>가 부차적 근거밖에 될 수 없지만, 변화상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결과적 분포를 통해 ‘변화’에 접근할 때, 단기간에 달성된 언어 변화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자료는 변화가 막 완료된 자료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그러한 자료는 <捷解新語>이다. <捷解新語>의 분석 결과를 선명하게 보이기 위한 대조군으로 적당한 자료는 <內訓> 등 {-습-}의 기능이 변하지 않은 자료이다.

(cognitive calculus)과¹³⁾ 이해(Parsing)·해석(construe)의 관점에서 {-습-}의 의미변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 소절의 마지막에서 짧게 언급한 것처럼 [그림 1]의 ①, ②는 {-습-}의 의미변화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상정될 수밖에 없는 ‘추측의 역사’이다. {-습-}의 의미변화와 관련된 이 ‘추측의 역사’의 과정은 ‘행위자’가 ‘화자’로, ‘수동자’가 ‘청자’로 이행되는 과정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행위자=화자, 수동자=청자’인 맥락의 고빈도와 이에 따른 일반화의 과정일 것이다. 자료를 통해 이를 지지하고 통계치를 보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습-}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장 보수적인 문헌과 변화가 완료된 문헌을 비교하여 이 둘 사이에 보이는 {-습-}의 행태나 분포 등의 차이를 짚어보고 {-습-}의 의미변화의 단서들을 살필 것이다.

2.2.1 문헌

(1) 우흐로 帝人 恩을 (帝에게) 갑스오며 <내훈奎,¹⁴⁾ 2, 66b>¹⁵⁾

(1)은 <內訓>에서 가져온 문례이다. ‘은혜’를 ‘帝’에게 ‘갑-’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습-}에 의해 ‘帝’가 존대되고 있다. {-습-}은 후기

13) 어떤 언어 단위의 사용이 다른 것과 기능상 중화를 보일 경우에 다양한 인지적 정보들을 이용하여 본래 의미를 알아내어 이해(Parsing)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이르는 말로, Eliasson(1990)의 용어이다. Eliasson(1990:288-291)에서는 스웨덴어의 동음어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인지적 계산(cognitive calculus)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이해·해석의 과정에서 언어가 변하게 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같은 학술대회 발표문 모음집에서 Ohala(1990)은 같은 개념으로 ‘인지적 계산’ 대신 ‘되돌려지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4) 규장각 소장 <內訓>(1611년).

15) ‘[]’는 {-습-}의 쓰임에 의해 존대되는 대상이고, ‘()’는 원문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존귀자이다. 밑줄, 따옴표 및 괄호 등 필자가 한 것이고 이하 동일하다.

중세국어와 비교하여 의미 차이가 없다.

- (2) 公正^{호요}므로 [넘금을] 값스올디어늘 <내훈奎, 3, 25a>

이 문장에서도 존대의 대상은 “임금”이다. {-습-}의 의미는 후기 중세 국어와 다르지 않다. 청자와 관련된 대우법은 정동사 어미에서 표현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습>이 나타나는 보수적 문헌들의 다른 예들을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 (3) [慰문 조차 주시물] 업더려 넙스오니 <가례언해, 7, 7a>
 내 슈건과 비술 (임금 위하여) 값스오미 <내훈奎, 2, 20a>
 帝 즈조 后의 묻줍거시든 ... (왕을) 뉘스오미 <내훈奎, 2, 43b>
 그 후의 [영정대왕] 업스오시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3, 82b>¹⁶⁾
 (부모의) ... 은덕을 어디 다쳐 값스오리 <경민편언해, 38a>
 [국은을] 넙스와 각별이 文解를 뉘케 하시니 <경민편언해, 25b>

이와 같은 예들을 통해 <습>의 의미가 15세기와 비교하여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읍>과 <줍>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 (4) 題本 [엿줍는 글월] 드리옙다 <역어유해, 상, 11a>
 아적기 나가 나죄 도라와 (어미를) 뉘옙기와 문안을 조곰도 쇠티 아
 니코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1, 63b>
 婦 | [舅姑씨] 뉘오오라 <가례언해, 4,21b>
 主人과 主婦 | 親히 [祖考 以下 祠版을] 내오와 <가례언해, 1, 28b>
 帝 즈조 [后의] 묻줍거시든 <내훈奎, 2, 43b>
 천랑을 가져다가 [父母씨] 받즈와든 <내훈奎, 3, 27a>

문법적으로 보수적인 양상을 보이는 <內訓>, <家禮諺解>, <東國新續

16) {-습-}에 의해 존대되는 대상을 수동자로 보면 중세 시기에도 왕왕 나오는 이러한 예를 예외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없다’의 주어는 수동자이다.

三綱行實圖), 重刊<杜詩諺解>, <譯語類解>에서도 후기 중세국어에서와 용법이 달라진 {-습-}을 찾을 수는 없다. 이런 문헌들은 유학의 이념을 전파하거나, 중세 문헌의 중간본으로 전기 근대국어 시기의 자료라고 해도 그 성격이 매우 보수적이다. 이 문헌들에서 {-습-}의 앞뒤에 오는 언어 단위들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와 마찬가지로 크게 제한이 없고 특정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형태 별로 볼 때 <줍>이 특정 어간에 자주 결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¹⁷⁾. 이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다.

한편 같은 전기 근대국어 문헌이라고 해도 <捷解新語>에서 <습>, <읍>은 더 이상 수동자존대(행위자겸양)를 나타내지 않으며, 완전히 청자존대(화자겸양)에 쓰이는 단위로 변했다.¹⁸⁾

17) 이러한 경향은 전기 근대국어 전체를 관통한다. 대상 문헌 전체를 대상으로 <줍>이 출현하는 어간의 분포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어간에 ‘열-’을 포함시킨 것은 결국 이 시기의 ‘받-’이나 ‘듣-’에 결합한 <줍>도 어간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열-’과 같고, 이 점이 바로 빈도효과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곧, 특정 어간과 고빈도로 출현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어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줍	166 회 출현	받- : 60회 (36.1%) 열- : 40회 (24.1%) 듣- : 23회 (13.9%) 문- : 9회 (5.4%)	(총 712회 中) 받- : 266회 (37.4%) 열- : 164회 (23.0%) 문- : 94회 (13.2%) 듣- : 73회 (10.3%)
즈오	545 회 출현	받- : 207회 (38.0%) 열- : 124회 (22.8%) 문- : 85회 (15.6%) 듣- : 50회 (9.2%)	
줍	0 회 출현	--	
쨌오	1 회 출현	쨌- : 1회	

18) <捷解新語>를 {-습-}의 의미 변화 맥락을 추정하기 위한 문헌으로 선택한 이유는 앞서 언급된, {-습-}의 완전한 의미 변화가 가장 빠른 문헌이라는 점 외에, 이 문헌은 ‘대화체’이므로 청자존대의 어미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있다. 청자존대의 어미가 나타나지 않으면, 변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습-}의 분포를 살필 수가 없다.

(5) 모든신 디도 알외여 주옵소 <첩해신어 9,5a>

이 예문에서는 ‘행위자’는 (‘화자’가 아닌) ‘청자’이다. 그리고 /옵/은 행위자인 청자를 존대하는 데 쓰이고 있다. 위와 같은 담화 맥락은 [그림 1]의 {-습-}의 의미 이행 과정에서 상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습-}의 의미변화를 일으키는 담화 맥락에 정면으로 反하는 맥락이 된다. 그런 데도 {-습-}은 청자존대(화자겸양)로 해석된다. 이런 예문은 {-습-}의 의미가 청자존대(화자겸양)로 완전히 변한 이후가 아니라면 나타날 수 없다. 아래의 예문도 그런 예가 된다.

(6) 巡杯는 디낫습거니와 <첩해신어 2,6a>

술잔을 돌리는 일이 다 끝났다는 뜻의 문장으로 ‘디나-’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앗’과 /습/이 차례로 교착하였다. 논항은 ‘巡杯’ 하나뿐이며, 의미역은 수동자이다. 즉 ‘디나-’는 주어의 의미역이 수동자인 자동사여서 논리적으로는 주어가 존대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습/이 ‘巡杯’를 존대하는 데 쓰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미 ‘습’은 청자존대(화자겸양)의 의미로 완전히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捷解新語>에서도 <습>은 여전히 수동자존대(행위자겸양)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7) ㄱ. 正官은 섬으로써 올 적브터 [東萊 극진호시물] 듯줍고 <첩해신어, 2, 4a>

ㄴ. [며출만외나 返事] 올고 짐작이 계실 써시니 니르옵소] 듯줍새 <첩해신어, 5, 8a>

(7ㄱ)에서 “듯-”는 내용인 “東萊(=동래부사)¹⁹⁾ 극진호시물”을 높이기 위

19) 괄호의 내용은 필자가 집어넣은 내용이다. 東萊는 東萊府使를 가리키는 일종

해 /줍/이 쓰이고 있고, (7ㄴ)에서 “듣-”게 되는 내용은 ‘니르-’는 바이고 이를 높이기 위해 /줍/을 쓰고 있다. (7ㄱ)에서 “東萊 극진호심”이 존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동래부사의 행위나 상태’는 ‘듣는 행위’를 할 때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²⁰⁾ 마찬가지로 (7ㄴ)에서 ‘니르-’는 것이 존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청자존대(화자겸양)의 /옵/과 {-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니르다’라는 행위를 할 사람은 청자인데 ‘니르-’에 청자존대(화자겸양)의 형태인 /옵/이 결합해 있는바 듣는 행위를 할 화자에게 곧 청자가 말하게 될 내용은 존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捷解新語>에서도 <줍>은 <습>이나 <옵>과는 달리 여전히 수동자존대(행위자겸양)로 쓰이고 있다.

<줍>은 후기 근대국어로 가도 청자존대(화자겸양)의 기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늦어도 <捷解新語>에서부터는 <줍>을 <습>, <옵>과 별개로 볼 수 있다. <줍>을 형태소로 취급하는 것이 무리라고 해도 최소한 {-습-}의 전체적인 변화 방향에 따라 변하지 않아 의미 차이가 심해졌으므로 더 이상 {-습-}의 이형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된다.

다음 소절에서 할 일은 다음의 두 가지로 좁혀진다. 1) <습>, <옵>의 의미는 어떤 이유로 변했고, 그 이유를 지지할 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2) <줍>이 전체적인 {-습-}의 변화에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의 환유법적인 표현이다.

20) 후기 중세국어의 {-습-}이 쓰일 때 존대되는 존재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존자의 행위나 상태, 판단까지도 포함된다(안병희 1961).

2.2.2 {-습-}의 변화가 일어난 맥락의 빈도

2.2.2.1 <습>, <습>의 의미변화

담화 · 통사 맥락 ; <捷解新語>에 나타나는 {-습-}의 의미는 <습>을 제외하고는 이미 청자존대(화자겸양)에 이르렀으므로 <捷解新語>는 {-습-}의 의미변화와 관련된 어떤 맥락 조건의 일반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화석을 통해 고대의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습-}의 의미가 변화를 완료하였다고 해도 <捷解新語>를 통해 {-습-}의 의미가 변화하면서 동반되었던 상황들은 관성으로 남아 발견될 수 있고 이로써 어떤 맥락이 조건이 되어 {-습-}의 의미가 변했는지 짚어낼 수 있다. {-습-}과 관련하여 특정한 담화 · 통사적 맥락이 고빈도로 나타나야, {-습-}의 맥락 조건적 異意味가 맥락이라는 제약에서 해방(emancipation, cf. Bybee 2003a, 2003b)되어 모든 맥락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때에야 비로소 {-습-}의 의미가 변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의미변화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변화를 초래했던 맥락 조건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습-}은 근 1세기 안에 의미변화가 이루어졌고²¹⁾ <捷解新語>는 {-습-}의 의미변화가 문헌 전체를 통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의 첫 자료이므로 언어 사용의 관성을 인정하여 변화의 맥락을 되짚어보는 작업은 유용할 것이다.²²⁾

21) 후기 중세국어(15·6C)에는 대체로 {-습-}의 기능이 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玄風郭氏諺簡>이나 <癸丑日記> 등 <捷解新語>보다 얼마 앞서지 않는 문헌들에서 {-습-}의 기존 용법이 간간히만 발견될 정도로 {-습-}의 의미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捷解新語>에서는 완전히 의미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지만 지역적 차이가 고려한다면 반드시 {-습-}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유범(2005, 어문논집 51호) 등에 소개된 17세기 후반의 <청풍김씨가언간>에서도 ‘습’이 상대겸어법으로 쓰이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습-}의 의미변화는 15·6세기에는 보이지 않다가 17세기에 들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갑작스럽다고 볼 수 있다.

- (8) “길지 신무 저귀 급데호야 문하주셔를 호여시니 신해 두 님굽이 업스니 비읍건대 [도라가 늘근 어미를 쳐서 뼈 신의 두 성 아니 섬기논 뜨돌 일워징이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 5b>

위는 ‘~ 비읍건대 ~ 일워징이다’의 구성을 갖는 일종의 분열 구문으로, ‘~ 일워징이다’가 이끄는 절이 ‘비읍건대’의 논항이 된다. “빌.”은 “누가”, “누구에서”, “무엇을” 에 해당하는 세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하고 예문에는 ‘길지’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논항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맥락 상 “누구에게”는 “청자”임을 알 수 있다. ‘길지’라는 사람이 화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청자로서의 “수동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화자와 행위자역 논항의 외연이 일치하고, 청자와 수동자 논항의 외연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비읍건대”의 /읍/이 후기 중세국어의 의미대로라면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논항에 대한 존대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³⁾. 그런데 ‘행위자 논항’과 ‘수동자 논항’의 외연이 각각 화자와 청자와 일치하고 있어서 얼핏, 이 /읍/을 청자대우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청자존대(화자겸양)의 관계는 수동자 논항 존대의 관계와 표현하는 바가 같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 (9) 늑월의 간관이 상언호더 “원계 공이 주거도 쏘호 석디 아니호니 비읍건대 [마알로 호여곰 벼스를 튜증호시고 본곶에 스당 세시고 즈손을 쓰샤 튜성된 녁슬 포장호야 위로호샤 뼈 혼 사름을 위로호쇼셔]” 호야놀 그리 호라 호시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 6b>

22)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엔 이와 관련된 빈도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 세종 프로젝트의 역사 자료 말뭉치를 이용해 15, 16세기 자료에서 <습>이 나타난 곳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총 201 회 중 30 회만이 청자와 수동자가 일치하고 있어서 <捷解新語>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23)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존대하는 것일 리는 없다.

‘각관’이라는 화자가 청자인 동시에 ‘빌-’의 수동자 논항인 읽사람에게 “위로하기”를 비는 것이다. 즉, “화자인 각관이 청자인 상위자에게 원계 공을 위로하기를 빌-”처럼 파악할 수 있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습-}의 의미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문헌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 (9)의 예들을 관찰한 결과, ‘화자=행위자’, ‘청자=수동자’일 경우, 화자의 청자에 대한 (겸양에 의한) 존대의 상황이, 행위자의 수동자에 대한 (겸양에 의한) 존대의 상황과 그 외연적 관계와 일치하게 되어, {-습-}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없게 됨을 알게 되었다.²⁴⁾ 이런 맥락을 {-습-}이 ‘수동자존대(행위자겸양)’와 ‘청자존대(화자겸양)’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게 되는 조건으로 삼고자 한다. 여기에서 확보되는 {-습-}의 의미변화에 대한 또 다른 단서는 문어가 아닌 일상적 구어에서는 화자가 발화문장의 행위자가 되고 청자가 수동자가 되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수동자존대(행위자겸양)’가 ‘청자존대(화자겸양)’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상거래나, 질의응답 등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상황에 대한 도식(schema, script)²⁵⁾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할 것이다.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 인지적 계산(cognitive calculus)이 불가능해져서 {-습-}의 기능이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문헌이 바로 <捷解新語>이다.

24) 현대국어에서 {-습-}의 구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근대국어 시기에 이미 {-습-}과 다른 청자존대(상대존대)의 어미들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습-}이 청자존대(상대존대)의 어미에 추가되어 화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지적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25) 언어가 규칙이 아니라 절차적 지식이라는 인지문법의 입장에서는 도식(schema, script)이 언어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경험의 범주화를 통해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되는 언어 사용 패턴이 대체로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화자와 청자가 각각 명제의 행위자와 수동자의 외연과 일치하는 맥락이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게다가 명제 내부에 실현되는 화자와 청자는 생략이 잘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 아래,²⁶⁾ 본래는 담화론적으로 조건된 {-습-}의 異意이던 청자존대(화자겸양)의 용법이 탈맥락화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²⁷⁾

분포와 빈도 ; 그런데, 보통 담화상의 청자에 대한 존대표현은 객체존대의 표현이나, 그보다는 심하지 않지만 주체존대의 표현처럼 쉽게 생략되지 않고, 의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습-}이 담화론적인 異意로 청자존대(화자겸양)의 용법을 가진다고 해도 완전한 탈맥락화 이전에는 청자존대(화자겸양)의 어미를 동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捷解新語>에서는 /습/에 후행하는 요소의 40%가 청자존대(화자겸양)에 소용되는 ‘느이’에 기원한

26) 언어사용이 언어의 형태나 쓰이는 방법 등을 결정한다는 사용 기반(Usage Based)의 인지문법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담화 맥락에서 특정 논항이 자주 생략이 되며, 동시에 생략된 그 논항을 맥락의 조건으로 하여 의미(異義)를 갖는 문법 요소가 존재한다면, ‘의미가 변하게 될 문법 요소’가 참조해야 하는 논항에 대한 정보는 담화 맥락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언어 사용을 고빈도로 오랫동안 경험한다면, 그런 언어 사용에 노출된 언어 사용자의 언어에 대한 인지적 표상에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Eliasson (1990:288-291)의 인지적 계산(cognitive calculus)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습-}의 쓰임과 관련하여, 통사적 맥락으로서의 논항을 직접 참조하던 것에서 논항을 생략 가능하게 하는 통사·담화적 맥락 조건을 참조하게 되다가 인지적 계산력이 경험의 감소와 비례하여 낮아지면서 점차 담화 맥락만 참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습-}의 의미는 논항 간의 대우관계를 나타내던 것에서 담화상의 대우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나, {-습-}의 異意 가운데는 주체존대도 있다. 그 가능성은 주어의 의미역이 수동자인 경우에 수동자존대(행위자겸양)를 위해 쓰인 {-습-}과 주체존대를 위해 쓰인 {-시-}가 외연적 의미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습-}의 이런 다소 약한—주어가 수동자인 용인의 유형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상기하라—사용 경향은 후기 근대국어에 잠시 나타난다. 이것이 현대국어의 ‘하옵시먼’ 등에 나타나는 {-옵시-}의 기원인 것으로 보인다.

‘늑이’와 이것이 축약한 {-니(-)}²⁸⁾이다. 화자와 청자가 행위자와 수동자에 일치하는 맥락에서 갖는 {-습-}의 이의(異義)와 {-니(-)}의 의미 사이의 관련성(relatedness)은 매우 높다. {-니(-)}만이 아니라 청자존대의 의미를 가지던 어미들인 {-새(-)}, {-소(-)} 등과도 매우 관련성이 높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습-}의 의미가 이미 청자존대(화자겸양)로 완전히 변한 <捷解新語>를 살펴, {-습-}의 분포와 빈도가 {-습-}의 의미변화를 일으켰을 맥락을 증명해준다고 추정한다. 즉, {-습-}이 청자존대의 어미들인 {-니(-)}, {-새(-)}, {-소(-)} 등과만 한정적으로 자주 결합하여 나타났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

(10) ㄱ. 니얼이라도 연고 업스시거든 서어훈 거술 가지여 오읍새
 <첩해신어9,5a>

ㄴ. 모든신 터도 알외여 주읍소 <첩해신어9,5a>

위의 두 문장에서 /읍/의 의미는 수동자존대(행위자겸양)가 아니다. (10 ㄱ)에서 존대의 대상은 청자이며 동시에 생략된 행위자 논항이다. /읍/에 후행하는 ‘-새’는 ‘사+이’의 축약형이고, 이 ‘사이’는 ‘사이다’에 기원하는 것으로 청자존대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²⁹⁾. (10 ㄴ)에서는 ‘읍’

28) 전기 근대국어 시기의 ‘늑이, 니’를 하나의 형태소 {-니-}로 다루어도 될 정도로 독자적인 청자존대(화자겸양)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과거시상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엇/앗/어시/아시-}와 ‘니’가 함께 쓰이는 예들이 있어서 ‘늑’이 더 이상 시상을 나타내는 독자적인 형태소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29) 서정목(1990)에서는 ‘-새’가 ‘-사이다>사이다>새다’의 변화를 겪으면서, 마지막 ‘다’의 탈락으로 청자에 대한 대우의 정도를 약간 낮추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봤다. 범언어적인 형태변화의 원리는 의미변화가 형태변화를 이끄는 것이므로, 청자존대(화자겸양)의 정도성에 대한 의식이 약화된 이후 어말어미의 탈락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의미를 지니는 말도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의미의 탈색(bleaching)과 형태적 축소를 겪게 된다. 예로, 군에서는 누구나 서로 마주칠 때마다 거수경례와 함께 ‘충성’이라고 발화해야 한다. 즉 인사치레다. 따라서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loyalty’를 생각할 필요성이, 때로는

을 ‘알외여 주-’에 후접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알외여 주-’의 행위자 논항, 즉 주어는 ‘청자’와 일치하고 대상이 되는 논항은 어떤 사실로써 앞 문장에서 파악되는 구정보이며, 수동자 논항은 생략되었으나 맥락상 ‘화자’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ㄴ)에서 /습/의 의미는 청자존대(화자겸양)로 파악된다. 그 밖의 <捷解新語>에서 발견되는 ‘습니’, ‘습새’, ‘습소’ 등도 청자존대(화자겸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捷解新語>가 {-습-}과 관련하여 앞의 보수적인 문헌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정동사 어미에서 {-습-}과 {-느이-} 혹은 {-너-} 등의 결합 빈도가 한눈에 보기에 매우 높다는 점이다. <捷解新語>에서 <습>과 <습>의 분포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捷解新語>에서 정동사 어미에 나타나는 <습>과 <습>의 후행 형태들

이형태	출현 횟수	고빈도로 나타나는 후행 요소와 출현 빈도
습 (습)	31	-너/느이 ; 24 (77.4%) -소 ; 3 (9.7%) -새 ; 1 (3.2%) -ㄴ가/ㄴ고 ; 2 (6.5%) -던가 ; 1 (3.2%)
스오 (쓰오)	9	-리이다 ; 3 (33.3%) - ㅅ ㅅ 이이다(스왕이다) ; 3 (33.3%) -ㄴ가, ㄴ고 ; 3 (33.3%)
습	179	-(시)느(니)이/(시)너/녕이 ; 40 (22.3%) -(시)테, 거이다 ; 6 (3.4%) -도송이다/(시)도쇠/ㅅ쇠 ; 31 (17.3%) -싸이다/새 ; 10 (5.6%) -소/쇼셔/쇠 ; 77 (43.0%) {-이-, -새-, -쇼셔} 등의 후계형을 포함하지 않는 것 ³⁰⁾ ; 15 (8.4%)
(으)오	66	-리 ³¹⁾ ; 18 (27.3%) -녕이다, -령잇가, -령이다 ; 3 (4.5%) -시도쇠 ; 1 (1.5%) -시소 ; 1 (1.5%) -시드라 ; 1 (1.5%) -ㄴ가, -르가, -ㄴ고, -르고 ; 42 (63.6%)

여유조차 없다. 그와 함께 형태적 축소도 나타나서 사병 간에는 /총:/이라고 하기도 한다. 본래 의미가 ‘peace and ease’인 ‘안녕’의 의미 탐색과 같다.

표를 통해 <습>이 ‘-늑이’, ‘-니’, ‘-도송이다, -도쇠’, ‘-소, 쇼셔’, ‘-새, -사이’ 등에 매우 고빈도로 선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청자 존대의 용법에 기원한다는 것이다.³²⁾ 서로 다른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소가 되거나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등 문법화가 진행될 때 관찰되는 변화의 한 가지 조건인 ‘사용의 빈번함’을 확인할 수 있다.³³⁾

한편 현대어의 ‘-습니-’를 감안할 때, ‘습늑이’ 등이 겪은 문법화와

- 30) ‘-(시)는가, -(시)는고, -더, -셔노, -시고, 시던고, -돏, -신가, -실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31) 문말의 ‘리’는 ‘리이’의 축약형일 가능성이 있다. 서정목(1988 등) 참조.
- 32) 후기 중세국어의 어미 형태소 가운데 청자 존대에 쓰인 것으로는 {-이-}, {-사이-}, {-쇼셔} 등이 있다. {-이-}는 {-늑-}나 {-더-}, {-돏-}의 뒤에 융합하여 ‘-늑(-)’, ‘-대(-)’, ‘-도쇠(-)’ 등으로 발달하고, {-사이-}는 {-새-}를 거쳐 현대국어 청유형 어미 {-하시다}의 ‘시’로 이어진다. 한편 {-쇼셔}는 근대를 거쳐 현대어의 명령형 {-소서}와 {-소}로 발달한다. 이상 서정목(1988, 1990, 1993) 참조.
- 33) <捷解新語>의 정동사 어미에 <줍>은 총 9회 나타난다. 그 가운데 청자존대의 어미가 동반된 경우는 7회여서 비율만으로는 <습>, <옵>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줍>에 의해 존대 받는 대상과 청자존대 어미(여기에선 ‘이’)에 의해 존대 받는 대상이 다른 예가 있다. 본고는 <습>, <옵>이 청자존대의 어미와 같이 쓰일 때는 그런 경우를 발견할 수 없었다.

“太守 | 今度 슈고헌신 양은 朝廷의도 츠서히 엇조오링이다<첩해초8, 32b>” 또한 對照群이 되는 <內訓> 등의 보수적 문헌에서는 <습>이 나타난 정동사 어미 15회 중 1회만(<譯語類解>의 ‘젓스와이-’)이 {-이-}와 결합한 예가 나타났고 <옵>은 정동사 어미에서 21회 나타났는데, 청자존대의 어미와 함께 나타난 예가 없었다. 이런 극단적 양상은 일정 정도 <捷解新語>가 “대화체”이기 때문이었으나 {-습-}의 기능변화와도 무관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시기 전체적으로 <줍>이 나타나는 약 85회의 정동사 어미에서 32회에 {-이-} 등의 청자존대 어미들 나타났는데, 10여회는 <捷解新語>, 改修<捷解新語> 이외의 문헌들, 특히 일기·연간류에서 발견되었고, 정동사 어미와 함께 쓰인 <습>은 259회 나타났는데 그 중에 125회에서 청자존대 어미들이 쓰였고, <옵>은 755회 가운데 561회에서 청자존대 어미들과 함께 쓰였기 때문이다. 한편 <內訓> 등의 보수적 문헌에서는 <줍>이 나타나는 22회의 정동사 어미 가운데 1회(<가례언해>의 ‘뭇줍뇌이-’)에서만 {-이-}가 나타났다. 대조군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은 둘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변화이다. 인접한 두 요소를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원리로 위에서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관련성은 두 요소가 의미적으로 얼마나 유사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관련성이 높은 요소 사이의 범주적인 구분이 없어지는 변화로 범언어적인 현상이다.³⁴⁾ 특히 관련성이 높은 두 단위가 자주 그리고 상당 기간 같이 나타날 경우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즉 인지적 계산(cognitive calculus)에 의한 두 형태소의 분석(parsing)이 어려워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을 한 단위로 인식하기에 이르게 된다.

2.2.2.2 <줍>의 저항

한편 <줍>은 본래는 {-습-}의 이형태였지만, {-습-}의 전체적인 의미변화의 흐름을 따르지 않아 <捷解新語> 같은 문헌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어져 버렸다.³⁵⁾ 달리말해, <줍>은 {-습-}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아졌고, {-습-}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는 <줍>이 <습>, <읍>과는 다른 맥락에서, 좀 더 이른 시기부터 빈도효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좀 더 이른 시기부터의 빈도효과’가 실재했다면, <捷解新語>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문헌에서도 <줍>과 관련된 빈도효과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34) 관련성은 패러다임과 연관지어, 한 패러다임 안의 형태들 사이에 관련성이 적어져 독립된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거나, 혹은 독립된 패러다임이 의미적인 구분이 없어져 같은 패러다임이 되는 변화 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35) <줍>의 쓰임새가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습>, <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절의 핵심은 <습>, <읍>의 변화 방향을 <줍>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간재구조화를 통해 새로운 어간을 형성했던 <줍>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설정될 수 없다. 그러나 왜 그렇게 재구조화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특정 어간과의 고빈도 결합에 대한 빈도 효과적 설명이 어느 정도의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11) ㄱ. 正官은 섬으로서 올 적브터 [東萊 극진호시물] 듯줍고 <첩해신어, 2, 4a>
 ㄴ. 며출만이나 返事 | 올고 짐작이 계실 써시니 [니락읍소] 듯줍새 <첩해신어, 5, 8a>
 ㄷ. 그 나쁜 비에는 二人식 티올 써시니 이 道理 [信使씨] 엿줍고 <첩해신어, 5, 15b>
 ㄹ. [은갓 接待에 극진호심은] 비에서도 밧즈오면 <첩해신어, 6, 16b>

(11ㄱ, ㄴ)의 /줍/이 수동자존대(행위자점양)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는 점은 이미 (7)을 설명하며 보였다. 마찬가지로 (11ㄷ)은 ‘엿줍-’ 앞에 ‘信使씨’가 바로 드러나 있어서 <줍>이 수동자존대(행위자점양)로서 기능함을 쉬이 파악할 수 있고 (11ㄹ)에서도 내포절의 술어 앞에 주체존대 {-시-}가 통합하고 있어서 모문의 논항인 내포절의 명제가 존대자의 행위를 표현한 것이며, 그런 명제 자체가 존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네 예문의 <줍>은 모두 수동자가 존대되는 상황에 쓰인 술어 속에 나타난다.³⁶⁾

한편,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 <줍>은 선행 어간 말음이 ‘ㄷ, ㅌ, ㅊ, ㅌ’일 경우 출현하였고 특정 어휘와 빈번히 결합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다른 어휘들과의 결합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굴절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기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줍>에 선행하는 어형은 ‘받-’, ‘묻-’, ‘열-’ 등으로만 강력하게 한정된다.³⁷⁾ 앞서 살

36) 몇몇 어간과만 결합하며(낮은 유행빈도), 자주 나타나는 것(높은 출현빈도)은 <줍>과 선행 어간 사이의 경계가 약화·소멸되어 어휘화되는 한 가지 조건이다.

37) 본질적인 문제는 ‘왜’ <줍>이 이런 분포상의 제약을 보이게 되었느냐는 것이나 확답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러나 현대에 ‘줍’의 형태들이 녹아들어 있는 어휘들은 대체로 ‘무엇인가를 주고 받는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라는 점이 실마리가 될 지도 모른다. 즉 <줍>은 ‘받-’, ‘묻-’, ‘열-’은 ‘수동자’ 의미역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중세국어 {-습-}과의 긴밀성을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언제부터 <줍>의 결합 양상이 이처럼 제한되기 시작했는가도 국어사가 밝힐 주

편 보수적 문헌들과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捷解新語>의 <줍>의 출현 환경의 빈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하나의 문헌만이 대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 빈도 상으로는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³⁸⁾

<표 2> <內訓>, <家禮諺解>, <東國三綱行實圖>, 重刊<杜詩諺解>, <譯語類解>의 <줍>

출현 빈도	어간별 빈도(내림차순)
305 회-12	받- ; 204 회 (66.9%)
	연- ; 52 회 (17.0%)
	묻- ; 40 회 (13.1%)
	듣- ; 11 회 (3.6%)

<표 3> <捷解新語>의 <줍>

출현 빈도	어간별 빈도(내림차순)
30 회	연- ; 18 회 (60.0%)
	듣- ; 5 회 (17.3%)
	받- ; 1 회 (3.3%)

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연.’과 같은 어휘에선 이미 후기 중세국어에서 어간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변화가 ‘받.’이나 ‘묻.’ 등에도 전기 근대국어 어느 시기엔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줍>이 보이는 특정 어간과만의 관계(어휘고도제약)가 근대국어에 들어서 <습>이나 <읍>의 변화에 의해 “드러난” 것으로 파악한다. 이 문제를 지적해주고 연구의 방향을 언급해준 세 분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38) 본고가 관찰 대상으로 삼은 문헌들에서 <습>, <읍>이 교착하는 어간의 유형 빈도를 계산하면 아래과 같다. <줍>과는 달리 다양한 어간이 큰 치우침 없이 교착함을 알 수 있다.

<습>에 선행하는 선행 어간의 유형빈도

/습>에 선행하는 어간의 빈도	/소>에 선행하는 어간의 빈도
유형빈도 ; 62	유형빈도 ; 68
토큰빈도 ; 369	토큰빈도 ; 475
1 ~ 3위 ; 잡다(102), 오다(28), 없다(26)	1 ~ 3위 ; 없다(121), 있다(37), 잡다(22)

<줍>은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습-}의 이형태였지만, 굴절적 요소로 출현했던 이전 시기 동안 ‘듣-’, ‘열-’, ‘받-’ 등에만 집중적으로 그리고 고빈도로 사용되었다. 게다가 ‘듣-’, ‘열-’, ‘받-’은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두 존재가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상황을 타나내므로 모두 여격어가 필수적으로 상정되는 동사들이고, 여격어의 외연은 가장 빈번하게 {-습-}에 의해 존재가 표현될 때의 존재되는 존재이다. 무엇이 이런 특정 어간의 고빈도를 부추겼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언어 사용은 <줍>의 표상을 {-습-}에 독립적으로 만들었다. <줍>의 이러한 사용 경향은 개신적인 문헌이든 보수적인 문헌이든 별로 차이가 없음을 위의 두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이전 시기부터 인지적으로 <줍>이 <습>, <습>과는 다른 영역으로 표상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런 이유로 {-습-}의 전체적인 변화에 <줍>이 저항하고, 소수 어휘에만 특정 기능으로 쓰이게 된 결과, 더 이상 굴절 요소로 파악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어휘화된 것일 터이다.

2.3 기타

한편 {-습-}과 관련된 전기 근대국어의 빈도효과 중에서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읍새’, ‘읍시’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 이를

이 중에서 <內訓> 등의 다섯 자료에서 <습>의 어간 유형은 8, 토큰 빈도는 43이다. <捷解新語>에서는 어간 유형은 29, 토큰 빈도는 147이다.

<읍>에 선행하는 선행 어간의 유형빈도

/읍/에 선행하는 어간의 빈도	/으오/에 선행하는 어간의 빈도
유형빈도 ; 182	유형빈도 ; 51
토큰빈도 ; 1239	토큰빈도 ; 188
1 ~ 3위 ; 보다(123), 계사(78회), 흥다(135), 너기다(59)	1 ~ 3위 ; 피다(33), 뵈다(28), 알다(17)

이 중에서 <內訓> 등의 다섯 자료의 <읍>의 어간 유형 빈도는 37이고, 토큰 빈도는 127이다. <捷解新語>는 어간 유형 빈도는 32, 토큰 빈도는 224이다.

제외하고서 {-습-}의 이형태 분포의 변화를 제대로 이야기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만으로도 한 편의 논문감이 되어야 마땅하므로 여기에서는 그 대강만을 소개하고 구체적 연구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현대국어의 {-습니-}의 이형태는 /습니/와 /비니/ 둘이고 이들은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교체된다. {-습니-}의 ‘습’이 보이는 형태들은 <줍>이 빠진 후의 {-습-}으로 소급된다. 가정이지만, <줍>이 {-습-}에서 분기하지 않았다면, 현대국어의 {-습니-}의 이형태에는 /*줍니/도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습-}의 후계형을 포함하는 현대국어의 청유의 형태소 {-비시-}와 청자인 주체에 대한 공손 표시 형태소 {-옵시-}의 이형태엔 /*습시/나 /*습시/ 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두 형태소에 녹아들어 간 {-습-}은 <옵> 부류만을 이형태로 가지면서 발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포상의 편향은 전기 근대국어에서 이미 나타났다.

전기 근대국어 시기에 보이는 ‘{-습-}+{-사이(-)}’와 ‘{-습-}+{-시-}’의 출현 빈도를 이형태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 전기 근대국어 시기의 ‘옵시’(<옵새<옵사이)의 빈도

이형태	출현 빈도	선행 어간의 유형 빈도
<습>시	6	3
<줍>시	4	2
<옵>시	30	10

<표 5> 전기 근대국어 시기의 ‘옵시’(>‘-옵시-’)의 빈도

이형태	출현 빈도	선행 어간의 유형 빈도
<습>시	58	12
<줍>시	44	11
<옵>시	1,095	553 ⁹⁾

두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습-}+{-사이(-)}’와 ‘{-습-}+{-시-}’에서는 {-습-}의 이형태로 <읍> 부류가 거의 압도적으로 쓰이고 있다. 후기 근대국어에서는 약간이나마 나오던 <습>, <줍> 부류가 아예 없고 오직 <읍>만이 쓰이고 있다(김현주, 2006a). 전기 근대국어와 후기 근대국어의 분포 상의 변화는 유형 빈도 효과(type frequency effect, confer Bybee, 2001; Ellis, 2002) 때문이다. 곧, /습시/나 /줍시/가 쓰이는 어간의 수가 극히 소수이고 출현 빈도도 낮기 때문에 어간의 수가 많은 /읍시/로 평준화를 겪은 것이다. 이런 분포와 빈도가 {-습-}의 후계형이 녹아 들어가 있는 현대 국어 어미형태소 {-ㅁ시-}, {-읍시-}의 이형태에 /*습시/, /*줍시/ 등이 포함되지 않은 직접적 이유이다. 간접적이지만 근본적 원인인 그런 언어사용 경향의 동기는 언어 외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양난 전후의 경제사나 생활사 등의 메타언어학적⁴⁰⁾인 연구에 힘입지 않는 이상 쉽사리 추정할 수 없을 것이다.

-
- 39) “Xㅎ-” 유형은 하나로 취급하였다. “X”에 들어가는 70여 단어가 관찰된다.
- 40)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인간·사회—에 대한 학문. 메타언어학이란 역사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 등을 가리킬 수 있다. 이 용어는 슈마허(2002: 33-54)에서 딴 것이다. 그는 경제학이 진정 현실적인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메타경제학적 이해—즉, 인간에 대한 이해와 자원(자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를 이해하고 알기 위해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통해야 한다는 것은 기능문법의 기본적인 가정과도 상통한다. 이는 루디 켈러(2000)에서 언어의 변화와 관련해 인간과 사회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내세운 것이나, Mühlhäusler(2002)에서 위기에 처한 언어를 보전하기 위해 언어 생태학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도 상통한다. 이런 생각들은 매우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언어의 변화와 관련되는 한, 메타언어학적인 입장들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진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결론

관련성(relatedness)이나 인지적 계산(cognitive calculus)과 해석능력(parsability) 등의 용어를 굳이 꺼내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인지적 입장에서 의미란 결국 언어 사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언어 단위의 쓰임새의 변화가 언어 단위의 의미에 직결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의미의 해석은 맥락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서, 하나의 어휘라도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이의(異義)를 갖게 되고, 특정 이의(異義)가 나타나는 맥락이 매우 고빈도로 지속하여 보편화될 경우 맥락 의존적으로 파악되던 의미는 독립된 의미로 발달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형태소의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해도, 우연히, 혹은 다른 메타언어학적인 이유로, 그 쓰이는 담화·화용적 맥락이 달라질 경우에 극적으로 다르게 발달할 수 있다. 본고는 그러한 변화를 {-습-}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본 것이다.

본론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먼저 {-습-}의 이형태 가운데 <습>과 <업>이 겪었던 의미변화의 과정을 빈도효과에 의해 가상되는 순차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즉 특정 담화·통사적 맥락과 {-습-}의 동시 출현의 고빈도와 {-습-}과 {-니-}의 동시 출현의 고빈도가 ‘정리 1’의 핵심이다.

정리 1 ; {-습-}의 의미변화 과정

- 1) (일상적 대화 상황의 일반적 특성) 대화 상황에서 명제에 포함된 ‘화자’와 ‘청자’는 빈번히 생략된다.
- 2) ‘행위자=화자’, ‘수동자=청자’인 담화·통사적 맥락이 빈번히 발생한다.
- 3) 2)는 ‘청자존대(화자겸양)’와 ‘수동자존대(행위자겸양)’의 주체와 대상

이 같아지는 상황이다.

- 4) 이러한 상황에서 두 존재법이 동시에 실현될 경우 {-습-}은 {-니(-)}, {-새(-)}, {-소(-)} 등의 청자존대의 어미들과 그 의미가 가까워진다.
- 5) 1), 2)의 결과 {-습-}이 참조하는 논항들의 생략된 발화가 빈번히 나타난다.
- 6) {-습-}의 쓰임새는 ‘수동자에 대한 존재를 행위자의 입장에서 나타내는 것’이나, 5)로 인해 본래 {-습-}의 의미를 이해(parsing)하기 위해 인지적 계산(cognitive calculus)을 동원하게 된다. 즉, 음성적인 정보에서 논항이 확인되지 않아, 논항의 생략이 가능해지는 ‘행위자=화자’, ‘수동자=청자’인 맥락을 참조할 수밖에 없게 된다.
- 7) 그 맥락을 통해 ‘행위자’와 ‘수동자’를 각각의 외연인 ‘화자’와 ‘청자’에서 확인한다. 그런데 언어의 의미나 형태는 사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6)의 지속적인 발생은 {-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계산 능력을 약화시킨다. 곧, 인지적 계산을 위해 참조하던 맥락 자체가 기본적 쓰임새로 표상된다. 이렇게 {-습-}의 의미적 표상이 ‘행위자가 수동자를 존대함(혹은 행위자가 자신을 겸양하여 수동자를 존대함)’에서 ‘화자가 청자를 존대함(화자가 자신을 겸양하여 청자를 존대함)’ 쪽으로 강화된다.
- 8) 7)과 같은 상황의 누적은, 행위자와 수동자가 각각 화자와 청자에 일치하는 것에 관계없이 {-습-}의 의미를 “화자가 청자를 존대함을 나타냄(화자가 자신을 겸양하여 청자를 존대함)”으로 바꿀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습-}과 {-니-}, {-새-} 등의 의미적 구분이 약해지고, 즉 관련성이 높아지면서 둘을 같은 의미단위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전체적인 {-습-}의 의미변화에도 불구하고, <줍>은 <습>, <읍>과는 다른 맥락에서 빈도효과를 얻게 되어 다른 변화를 겪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리 2’의 초점은 특정 어간과 <줍>의 결합의 고빈도이다. 이를 간단하게 보이면 아래와 같다.

정리 2 ; <줍>의 저항

- 1) 높은 사용빈도(token frequency)의 한 가지 효과는 전체적인 체계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기능이나 굴절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다른 효과는

분포와 의미의 일반화와 형태 상의 약화이다.)

- 2) {-습-}의 전체적인 의미변화는 수동자존대(행위자겸양)에서 청자존대(화자겸양)로 이동하는 것이다.
- 3) {-습-}은 어간에 따라 <옵>, <습>, <줍>의 이형태로 실현되고, 각각은 인지적으로 선행하는 어간들에 따라 다른 연결을 지닌다.
- 4) <습>, <옵>이 특정 맥락에 의해 의미의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줍>은 다른 맥락에서 사용이 굳어지고 표상이 강화된다
- 5) <줍>은 거의 배타적으로 두 존재가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상황을 나타내는 너댓 종류의 어간에만 붙어 처격어의 외연을 존대하는 어휘를 형성하게 된다.
- 6) 4), 5)와 같은 조건은 <줍>이 <습>, <옵>과는 다르게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 7) 이후 <줍>을 제외한 {-습-}이 전체적으로 청자존대(화자겸양)로 사용되게 됨에 따라 <줍>은 {-습-}과 관련이 없어진다.

한편 현대국어의 {-ㅂ시-}, {-읍시-}에 들어 있는 {-습-}의 후계형으로 /읍/만 나타나는 것은 <표 3>, <표 4>에서 보이듯 이미 전기 근대국어 시기에서부터의 경향이였다.

참고문헌

- 김광해. 1990. “어휘소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재검토.” 『국어학』 20.
- 김유범. 1998. “근대국어의 선어말어미: 형태와 통합순서를 중심으로.” 『근대 국어 문법의 이해』(홍종선 편). 박이정.
- _____. 2005. “청풍부원군 중가 소장 언간에 대하여.”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학회. 87-104.
- 김정수. 1984. 「17세기 한국말의 높임법과 그 15세기로부터의 변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주. 2005. 「존대법 {-습-}의 역사적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_____. 2006a. “후기 근대국어의 존대법.” 『후기 근대국어 통사의 연구』

- (홍종선 외 공저). 역락.
- _____. 2006b. “후기 중세국어 {-습-}의 기능 : 존재되는 존재의 파악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31. 101-124.
- 루디 켈러. 2000. 「언어변화」. 이기숙 옮김. 서광학술자료사(Rudi Keller 1990. Sprachwandel.).
- 박부자. 2005. “선어말어미 “-습-” 통합순서의 변화에 대하여 -“-시-”와의 통합을 중심으로-.” 『국어학』 46. 227-256.
- 서정목. 1988. “한국어 청자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1).” 『국어학』 17. 97-151.
- _____. 1990. “한국어 청자대우 등급의 형태론적 해석(2).” 『강신항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555-583.
- _____. 1993. “국어 경어법의 변천.” 『한국어문』 2. 107-145.
- 슈마허, E. F. 2002.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문예출판사. (Ernst Friedrich Schumacher 1973=1993. *Small is beautiful; A study of economics as if people mattered.*)
- 안병희. 1961. “主體謙讓法의 接尾辭 -습에 대하여.” 『진단학보』 22. 103-126.
- 이승욱. 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연구」. 일조각.
- 이영경. 1992. “17세기 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國語研究』 108.
- 이승희. 2004. 「국어의 청자높임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현규. 1985. “객체존대 {-습-}의 변화.” 『배달말』 10. 55-86.
- 최호철. 1993. 「현대국어 敍述語의 의미연구: 義素 設定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ybee, Joan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Philadelphia: Benjamins.
- _____. 2000. Lexicalization of sound change and alternating environments. in Broe, M. & Pierrehumbert (Eds.). *Papers in Laboratory Phonology V*.
- _____. 2001. *Phonology and Language U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3a. Cognitive Process in Grammaticalization. in Michael Tomasello (Eds.). *The new psychology of language : cognitive and functional approaches to language structure(Vol. 2)*. Lawrence

- Erlbaum Associates. 145-167.
- _____. 2003b. Mechanisms in Changes in Grammaticalization : The Role of Frequency. in Joseph/Janda (Eds.).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Blackwell Publishing. 602-623.
- Bybee and Hopper. 2001. Introduction to Frequency and the Emergence of Linguistic Structure. *Frequency and the Emergence of Linguistic Structure*. John Benjamins. 1-20.
- Bybee, Joan Loan, Revere Perkins and William Pagliuca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hl, östen. 2001, Inflationary effects in language and elsewhere, *Frequency and the Emergence of Linguistic Structure*. John Benjamins.
- Eliasson, Stig. 1990. Cognition in phonological change. *Diachrony within Synchrony: Language History and Cognition*. Gunter Kellermann and Michael D. Morrissey (Eds.). PETER LANG(Frankfurt am Main · Berlin · Bern · Newyork · Paris · Wein). 283-308.
- Ellis, Nick C. 2002, Frequency effects in language processing. *SSLA* 24-2. Albert Valdman and Susan Gass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3-188.
- Hopper, P. and E. C. Traugott 2003. *Grammaticaliza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ühlhäusler, Peter 2002. Why One Cannot Preserve Language (but can preserve language ecologies). in David Bradley and Maya Bradley (eds) *Language Endangerment and Language Maintenance*. Routledge Curzon. 34-39.
- Ohala, J. 1990. Phonetic Change, what's cognitive and what's not. *Diachrony within Synchrony: Language History and Cognition*. Gunter Kellermann and Michael D. Morrissey (Eds.). PETER LANG (Frankfurt am Main · Berlin · Bern · Newyork · Paris · Wein).
- Sapir, E. 1949. *Language*. Harcourt

274 한국어학 35

김현주(Kim, Hyunju)

고려대학교 대학원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자우편 : koty1905@gmail.com

원고접수일 : 2007. 03. 15.

계재결정일 : 2007. 05. 06.